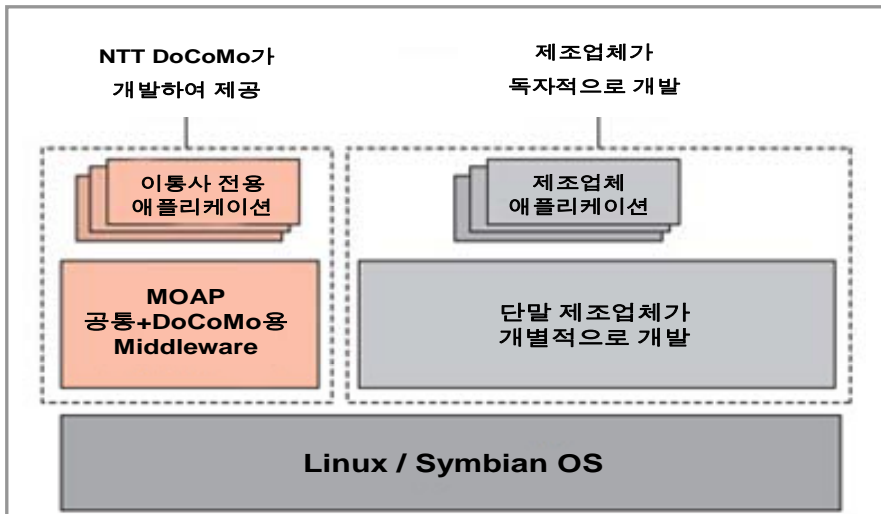


NTT DoCoMo의 단말기 개발 플랫폼 전략, 독자노선에서 개방화로 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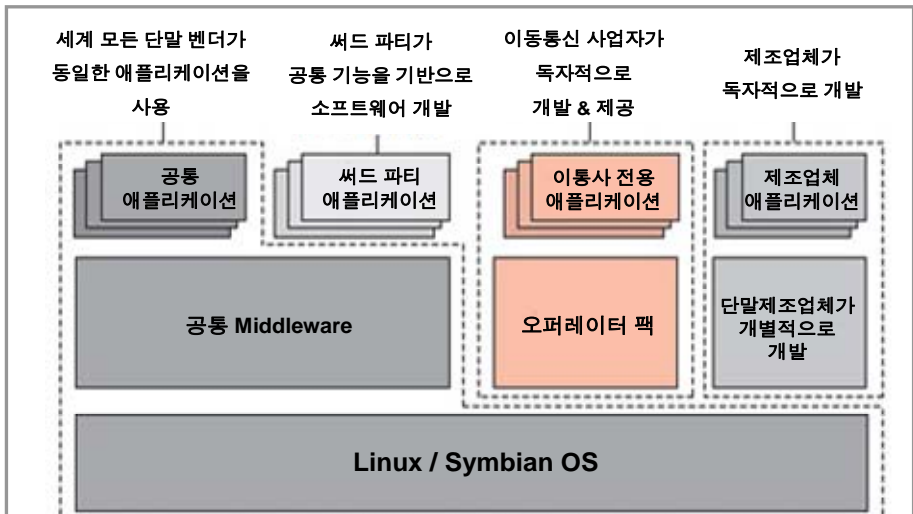
- NTT DoCoMo는 지난 7월 3일, 기존의 단말기 플랫폼 독자 개발 정책을 전면 수정하여 공통 애플리케이션, 이동사 전용 애플리케이션, 써드 파티 애플리케이션으로 분리한 휴대폰 단말기 개발 플랫폼 개편안을 발표함
 - ❖ 통화기능과 같은 모든 이동통신 단말에 탑재되는 공통기능과 i-Mode와 같은 NTT DoCoMo의 독자적인 기능을 분리함으로써, 단말 개발을 효율화하고, NTT DoCoMo 대응 단말시장에 해외 제조업체의 참가를 유도하며, 일본 제조업체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자 함. 개편된 개발 플랫폼은 2009년 출시될 제품부터 적용될 예정임

기존의 NTT DoCoMo 단말 개발 플랫폼



- 기존에는 휴대전화의 기본기능과 DoCoMo의 독자적인 서비스에 필요한 기능을 포함한 Middleware “MOAP (Mobile Oriented Application Platform)”에 단말 벤더가 독자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이었음

수정된 NTT DoCoMo 단말개발 플랫폼



- 새로운 개발 환경에서는 기존의 “MOAP”을 모든 단말에 적용되는 공통기능(전화 및 메일), DoCoMo 고유 부분(i-Mode, i-Channel)인 ‘오퍼레이터 팩’, 그리고 써드 파티 애플리케이션 부분으로 독립시킴으로써 단말 개발 주체 별 개발환경을 명확히 구분하여 개발업무의 효율화를 추구

NTT DoCoMo 개발 플랫폼 개편에 따른 기대효과

- 단말 개발비용 절감
 - ✓ NTT DoCoMo는 자사 서비스 부분만을 개발하고 단말기에 탑재되는 공통 소프트웨어부분은 외부 벤더에 위탁함으로써 단말기 제조 비용을 절감
- 해외로부터 저렴한 단말 조달
 - ✓ 해외 단말 벤더가 일본 이동통신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일본 이동사에 특화된 개발 환경을 별도 구축해야 했으나, 새로운 단말 개발 플랫폼 수정안에 따른 경우, 오퍼레이터 팩 부분만 변경하면 DoCoMo 대응 단말 제작이 가능
- 일본 단말기 제조업체의 해외 진출 촉진
 - ✓ 오퍼레이터 팩을 해외용으로 변경하면 현지 사양에 맞는 단말기를 제조할 수 있음
- 써드 파티 소프트웨어의 활성화
 - ✓ 공통 Middleware에 기초한 제품 개발로 세계시장에서 통용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능해짐